

Remind Green '지구와 함께 하나되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도청에서 그린웨이 환경축제

쇼트트랙 김아랑 · 프로축구 전북현대 팬사인회
지역예술인 '모던판소리' · '새빨간 거짓말' 무대
21일, 리마인드 그린 페스티벌 체험행사 다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제11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오는 20~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그린웨이환경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Remind Green'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녹색 마음을 기억하고 지구와 함께 하나 되어 공존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기억하다(Remember), 울리다(Echo), 연결하다(Mapping), 하나가 되다(Into One), 자연(Nature), 매일매일(Day by day) 등의 단어를 활용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기념식은 오는 20일, 전북도청 야외공연

장에서 열린다. 1부는 35사단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와 전북현대모터스가 함께하는 팬사인회, 코끼리 비버스카우트의 합창공연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북을 빛낸 스포츠선수와 '환경토크콘서트', 지역예술인 '모던판소리'와 '새빨간 거짓말'의 공연, 가수 씨니힐의 축하무대가 펼쳐진다.

이튿날에는 리마인드 그린 페스티벌이 열린다. 페스티벌에서는 함께 나눠 쓰고 또 쓰는 '또또시장'을 비롯해 '수달가족 삼천 나들이', 무동력 놀이터 '코끼리 놀이터',

지속가능한 도시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정책내 마음들 들어줘', '리마인드 그린버싱' 공연 등 기획프로그램과 함께 35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태 이야기를 배우는 '와글와글 환경학교', 시민참여 프로그램 '녹색요정 그린벨을 찾아라' 등 '환경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지산 일대와 삼천에 마련된다.

김지훈 그린웨이환경축제 총감독은 "이번 축제는 자연과 도시, 인간과 환경의 순환을 넘어 '동일하다', '같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며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을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미래로까지 전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구환경을 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의 소리... 전통연희극 문 활짝

전주소리문화관은 '2018 국악상설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 '전통연희극 히히 낭랑'을 21일 문화관에서 연다.

'전통연희극 히히낭랑'은 격동의 60년대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소리와 공연예술로 풀어낸다.

공연은 노동요·백중놀이·농악·삼여소리와 같은 민중들에 의해 전해지는 소리들을 공연의 중요한 요소로 차용하고, 여기에 악단·창극·사물놀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소를 접목

내일 전주소리문화관서

록 구성했다.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공연은 불과 가을(4~5월, 9~11월)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여름(6~9월)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유현도 관장은 "이번 무대를 통해 서로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담긴 전통문화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2년 연속 영화진흥위원회 평가결과 1위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평가결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영화제 평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18년 각 영화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전의 개최결과와 평가결과를 참고해 최종결정한다.

지난 16일 영화진흥위원회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년간 영화제 평가결과 1위를 기록하고,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등을 통해 영화제작과 배급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영진위는 '2018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심사 결과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산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총 6개 영화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액, 예산삭감 이전인 2014년 지원금 규모로 회복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준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전년도 25억 대비 15억이 증액되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익을 환원시켜 금년 제작편수를 5편으로 확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게 됐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된다.



관현악 무대에 함께할 젊은 예인들 '여기 모여라'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청소년·대학생 협연의 밤' 참여자 모집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청소년·대학생 협연의 밤' 무대에 함께할 협연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

국악원은 매년 젊은 예인들과의 <협연의 밤>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연주단과의 수준 높은 협연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오는 6월 7일과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5회 청소년 협연의 밤>과 <제23회 대학생 협연의 밤>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차세대 국악인재들은 이

무대를 통해,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과 한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국 국악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악과 기악, 타악 부문에 걸친 실기심사(오디션)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 각 5~6명(팀)씩을 선발한다.

실기심사는 5월 2일 진행하며, 3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국악원 홈페이지(www.kukak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특화지역조성사업단 총괄 단장에 문윤걸 예원대 교수 위촉

(재)완주문화재단은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창업대학원 교수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총괄 단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은 문화적 특색에 따른 분야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일환, 완주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문윤걸 단장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을 통해 완주를 문화가 생동하는 공동체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윤걸 단장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포럼 지역위원, 전라북도 전라산업 문화산업분과 위원장, 전주시 도시재생추진단 추진위원으로 활동해 온 문화전문가다.

이와 관련 완주문화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이끌고 갈 기획팀장과 팀원 각 1명을 공개 모집 중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5회 품바명인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군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 번영면 봉화산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